

## 위안 받으소서

### “삶과 죽음”의 길은 얼마나 멀까?

-병실에서는 환자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어 바닥만 보며 걸레질만 하고 있었다. 한 시간 넘게 복도와 병실을 오가며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한 자매님이 “형제님! 이 할머니 운동 좀 시켜드리세요”하며 병상에 노인에게 화사한 연분홍 스웨터를 입혀 드리며 “할머니 예쁜 스웨터 입으시고 밖에 나가 운동 좀 하세요. 그리고요- 예쁜 꽃도 보시고, 그러세요 네? 서로 말을 주고받기라도 하듯이 혼잣말을 한다. -병상으로 다가가서 거동도 못하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가슴에 안아 들자 할머니 몸에서 우두둑-하는 소리를 낸다. 순간 아파!- 하는 짧은 비명을 지르신다. 잠깐 사이지만 노인을 아프게 해드려 죄송스럽기도 하고 놀라서 진땀이 난다.

얼마나 말랐는지 마른 나무토막을 안아든 것 같다.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병원복도를 오간다. 그러다 복도 끝 작은 화분이 몇 개가 놓여있는 창가에 다가가서 “할머니 꽃이네요. 이 꽃 좀 보세요? 하고 말을 걸었다.

대답이 없어 상체를 위로 바쳐드리며 ‘할머니 창밖에 “하늘이 파랗네요!” 하늘 좀 보세요-’ 그래도 대답이 없어 노인의 얼굴을 살펴보니 눈을 감고 계신 것이다. 눈을 뜰 기력조차 없으신 것이다. 프르스름한 핏줄에서 맥박이 뛰고 있다. 마치 살아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힘겨워 보인다.

미아리삼거리에 성가복지병원 ‘호스피스병동’

이다. ‘실낱같은 생명’을 이어가는 무의탁 말기 노인환자들! 이들에게도 약동하는 젊음이 있었고 자신을 바쳐 사랑했던 가족과 자식들이 있었었을 것이다. 누가 이들을 외면한 것일까? 누가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외로운 임종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이 할머니에게는 꽃의 향기도, 푸른 하늘도 소용이 없다. 오직,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온기 없이 차디찬 손을 꼬-옥 쥐고 복도를 따라 가고있다. 나의 체온을 나누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휠체어를 밀고 간다.

-미약한 손길이지만 위안 받으소서! 위안 받으소서-

-무의탁 환자와 치료비가 없어 병원에 갈 수 없는 어려운 이들을 치료하는 “성가복지병원”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삶을 봉헌하는 수녀님들이 정성을 기울여 운영하고있다. 병원을 운영하는데는 막대한 비용과 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손길이 절실히 요청되는 곳이기도 하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후원하는 따뜻한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이 세상의 “소금”과 “참 빛”과 같은 곳이다. 내삶이 건강할 때 고통받는 이들을 생각하고 함께 하며 나누는 생활은 결코 손해나는 일이 아니다. 내 영혼을 맑게 해 준다. 비록 나 하나의 작은 봉사의 손길이지만 각박한 세상을 따뜻하게 해 준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권혁규(아우구스티노)/ hghere@naver.com